

청둥오리

세계적으로 날씨가 많이 바뀐 것을 몸으로 느끼며 산다. 특별히 청둥오리를 보면서 알게 된다. 일하는 곳에 유리 창문이 많아서 날씨의 변화를 금방 알 수 있는데 3월 초가 되면 오는 손님들이 있다. 청둥오리들이다. 청둥오리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무리를 지어 도착한다. 보통 3-400여 마리는 되는 것 같다. 3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다. 그래서 올해는 언제 오려나? 기대하고 있었다. 무리를 지어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는 오리들 때를 볼 때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시끄럽고 더럽기도 하다. 하지만 큰 파킹장 저쪽 끝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다. 청둥오리들이 오지 않는다. 오직 두 마리만 왔다. 나머지 400여 마리는 어떻게 된 것일까? 한주를 기다리고 또 한주를 기다려도 나머지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3주가 넘어간다. 보통 청둥오리들이 그곳에 왔다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또 다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3-4동안 열심히 걸어 다니며 땅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단 두 마리만 온 이유가 무엇일까? 오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었다. 그 정도로 궁금했다. 그렇게 3번째 오리들의 나들이를 보니 은근히 나 혼자 그들에게 정이 들었다. 그래서 더 걱정인 것이다.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창문 뒤에서 그들의 오고 감을 본다.

청둥오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인생이다. 청둥오리와 같이 나도 나그네의 삶을 산다. 그들이 자신들에 가장 알맞은 곳을 찾아 날아다니듯 나도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을 유지하고, 최고의 헌신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 최선이라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이 부끄럽기만 하다. 언제고 믿음에서 떠나 멀리 날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시 믿음의 에너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 번 날아오르는 삶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편 84편 5-6절) 라고 말씀하신다.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청둥오리들이 열심히 집어 먹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부지런히 집어 먹어 또 다시 날아오르는 주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의 삶이기 때문이다.